

2010 수시 논술 대비법



오답유형 철저히 파악 실수 줄여라

오는 19일부터 각 대학별로 2010학년도 수시 논술 및 면접이 실시된다. 올해 수시의 특징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논술 반영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수리·과학논술 대부분 교과서 중심 출제 주장은 설득력 있게, 논리적 비약은 금물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탄탄한 기본기 다지기다. 논술의 기본기인 ▲ 짧은 글 정확히 읽어내기 ▲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기 ▲ 논리적 비약 없이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필요로 오답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 오답유형을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하면 된다. 좋은 답안은 수험생마다 해결법이 다양하지만 나쁜 답안은 대부분 비슷하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제자가 예상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만 줄여도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만 줄여도 점수를 높일 수 있다. <나만의 모범답안 만들기>=오답유형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출제자나 출제 대학이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기출문제 등을 통해 자신만의 모범답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사 김기령 논술교육실장은 "최근 논술의 경향이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발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과서 중심의 개념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 기출문제와 교과서 위주로 준비>=올해 입시도 논술문제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 논술은 대학마다 어느 정도의 출제유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빈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대비해야 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주어진 문제의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짜임새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에는 언어논술 외에 영어 제시문을 활용한 영어논술과 통계, 그래프 등의 수리논술도 출제되고 있다.



한 수험생이 2010학년도 수시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대학 입학처에 접수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대학별로 논술 및 면접이 시작된다.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과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을 잘 살펴 준비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 한국인 학생과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 돕는다

전남대가 외국인-한국인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교육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전남대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학생을 위한 '1(한국학생)+1(유학생) 버디-버디(Buddy Buddy)'를 이번 학기에 처음 선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중 학사경고자 및 2009학년도 후기 신입생, 정부초청 장학생 등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수강과목별 개별학습 지원은 물론 원활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친구'를 사립으로써 전남대에 소속감을 느끼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운영목적이다. 현재 137팀(한국학생 136명, 유학생 1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활동비 지급과 우수학생 포상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연구원은 유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아하! 세계 학습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한편 전남대에는 중국을 비롯해 40여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 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첫 자율형 사립고 광주 송원고 8학급 280명 모집

광주·전남지역 첫 자율형 사립고인 광주 송원고가 오는 29일 5·18문화센터에서 입시설명회를 연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224명(남 140, 여 8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56명(남 35, 여 21명) 등 280명이며 8학급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 소재 중학교(광주근교 중학교 4곳 포함)로 내신 성적과 특별활동 성적 등을 반영해 30% 이내 학생이며 추천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학생 중 50% 이내에

들면 지원할 수 있다. 무단결석 3일 이내이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재학 중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11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일반고 후기전형에 이중 지원이 가능하지만 합격하면 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송원고는 우수 교직원 확보를 위해 6~7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며 영어를 전담할 원어민 교사도 3명 확보하기로 했다. /박진기기자 lucky@

서강정보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대학

서강정보대(총장 김정수)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대졸생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서 '취업지원 전공 연계 자격증 프로그램'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교과부 지원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의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시장 약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10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취업지원 교육훈련 이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강정보대는 졸업예정자를 주 대상으로 전공 관련 직종 및 산업체에서 우대하는 Auto CAD 기술 인종자격과정, POP고아고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 서비스코디네이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여대, 수시 1차 경쟁률 광주·전남 최고

2010학년도 광주여대 수시 1차 모집 최종 경쟁률이 4.45대 1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2010학년도 수시 1차 전형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561명 모집에 2천497명이 지원, 평균 4.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여대에 따르면 학과별 경쟁률은 간호학과가 60대 1(12명 모집 720명 지원)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으며, 신설된 치위생학과가 9.5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어서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음을 반영했다. 또 물리치료학과 8대 1, 유아교육과 6.3대 1, 작업치료학과 5.6대 1, 스펀디언스학과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여대는 오는 22일~23일 이를 통한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25일 이전에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수시 2차 모집은 10월 7일~15일 8일간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English Cafe, 영어만 쓰세요

조선대 중앙도서관에 영어전용학습공간 마련

"누구나 환영합니다. 단 영어만 사용하세요." 조선대에 영어 전용학습공간이 생겼다. 조선대 중앙도서관(관장 김선아)은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영어학습 전용 공간 'English Cafe'를 설치했다.



중앙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정보센터 안에 설치된 이 카페는 누구나 방문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영어 학습 자료를 보며 답소를 나눌 수 있다. 단 반드시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 현재 영어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회화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으며, 원어민 교수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은 기존 형식화된 학습 공간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몄다. 최대 12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과 마루에 앉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목 마루에 좌탁을 비치하고, DVD 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50인치 대형 모니터 2대와 인라인자 12석을 비치해 토론 학습과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영상 강의 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국내의 영어학습 자료 등을 비치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